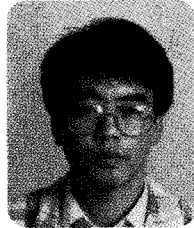


문제 모돈 및 옹돈의 관리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1. 발정 지연돈 및 문제돈의 처리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더위가 한 풀 꺾이게 되면 모돈의 사료섭취량은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된다. 또한 전반적인 번식성적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러나 더운 여름철부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였건 발정지연 및 공태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돈이 있다면 그야 말로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돈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관리로 모돈회전율을 높여야 할 때이다.

가. 이유후 발정지연돈에 대한 관리의 예

이유모돈은 매주 단위로 관리를 변경해 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즉 이유 후 1주간은 모든 이유모돈들에게 동일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발정이 오지 않는 개체는 2주차부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리해 준다.

- 1주차 : 이유후 스톨사육 : 이유시 비칸톨 주사, 사료량은 1일 3 ~ 4kg

- 2주차 : 군사돈방으로 이동 : 옹돈접촉, 청초급여, 사료량조절 (과비방지)

- 3주차 : 방목장으로 이동 :

그늘 및 물웅덩이 제공

- 4주차 : 스톨사육 : 옹돈접촉, 드라이브

- 5주차 : 도태 또는 호르몬제 사용여부 결정

나. 문제모돈 및 성적저하 모돈의 신속한 갱신

모돈 도태기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농장의 문제 모돈 및 성적저하 모돈의 신속한 처리가 결정이 되며, 농장의 번식생산성이 좌지우지된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모돈의 도태 기준이 되는 내용이다. 가급적 이를 철저히 적용하도록 하자.

< 모돈 도태기준 >

- 3회 연속 재발 또는 불임돈, 과비된 불임돈은 산차에 관계없이 즉시 도태한다.

- 2회 이상 연속 유산한 모돈

- 3산 이상 모돈의 성적이 농장의 초산돈

▶문제돈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관리로 모돈회전율을 높여야 할 때이다.

평균성적에 미달 할 때

- 7산 이유모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태를 원칙으로 한다.

- 이유후 40일 이상 발정이 지연된 무발정 모돈

* 경산돈 : 30일~40일 까지 무발정 시 도태

* 초산돈 : 40일~50일 까지 무발정 시 도태

- 사고후 (불임, 유산) 40일 이상 무발정인 모돈

- 지체불량으로 교배가 불가능한 모돈

- 1산 ~ 3산 까지의 포유두수가 평균 7두 이하인 모돈

- PHS (MMA) 증상을 보이는 모돈 (자돈 균일도 불량 포함)

- 질탈, 항문탈, 난산, 무리한 조산을 한 모돈

- 식욕부진, 식불 등으로 위축되거나 포유 능력이 없는 모돈

- 2산 연속 식자벽이 있는 모돈 (압사 다발 포함)

- 유방염, 맹유두가 3개 이상인 모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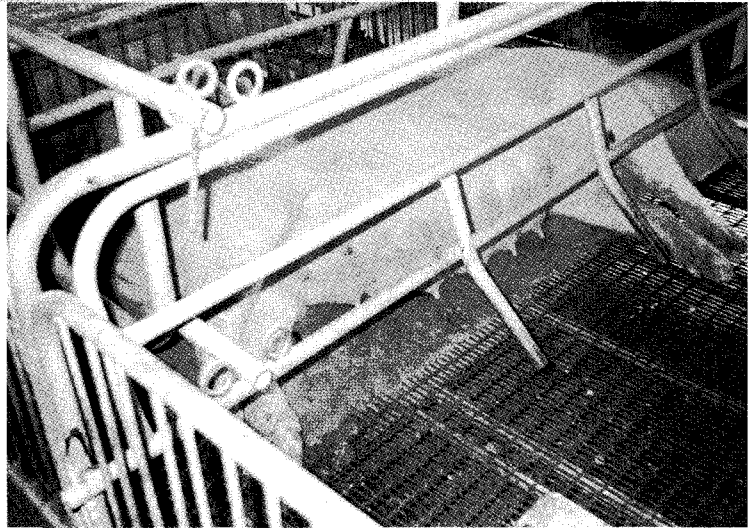
- 체형이상(바디컨디션 불량), 운동실조, 심한 외상이 있는 모돈

- 각종 질병으로 예후 불량시 폐사전에 신속히 도태

- AR 양성 모돈 (외관증상 발현시 즉시 도태)

다. 모돈 도태시 유의 사항

상기 도태기준을 적용시키다 보면 대부분



의 경우 정상 도태율을 훨씬 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태 결정시 농장의 산차구성 및 갱신율을 필히 고려 해야한다.

▶모돈 도태율이 정상 도태율을 초과할 경우

이런 경우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색출해야한다. 즉 예를 들면 지체불량으로 인한 도태율이 높을 경우 모돈의 지체를 약하게 하는 시설이나 관리상의 문제 또는 종돈자체의 유전적 문제 등이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불임과 같은 번식장애로 인한 도태율이 높은 경우 모돈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다.

▶정상범위 내에서 과감한 도태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최근 모돈 도태율은 40 ~ 50%를 정상범위로 보고 있다. 이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후보돈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후보돈이 부족한 경우는 문제돈이 발생하더라도 적기에 도태를 못시키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모돈회전율이 급격히 악화된다. 항상 상시모돈수의 10~12%의 후보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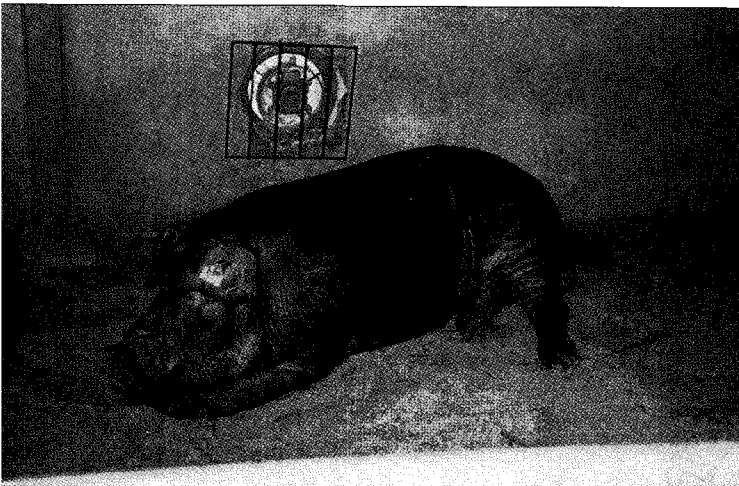
둘째로는 정상시의 세심한 사양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불임돈이나 이유 후 발정지연돈이 증가 할 때 발정체크와 발정유도를 위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들 문제돈들에 대한 미련이 남게되며 도태시점을 놓쳐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2. 웅돈관리

고온환경에 노출되었던 웅돈의 정액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을 시기이다. 따라서 이때 교배시키는 모돈의 수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유중인 웅돈의 활력 증강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가능한 인공수정의 비율을 높여 보는 것도 수태율 향상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노령 웅돈 갱신 (웅돈의 사용 기간은 생후 2년 6개월이 적당하다)

▼현재 98년도 출생 웅돈이 있다면 신속히 교체 해주도록 한다.



현재 98년도 출생 웅돈이 있다면 신속히 교체 해주도록 한다.

- 정기적인 웅돈의 도입으로 웅돈의 연령별 분포를 고르게 유지하도록 한다. (젊은 웅돈이 부족한 경우 초산돈의 자연교배가 어렵게 된다.)

- 웅돈 사용 현황판을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즉시 기록한다.

- 웅돈은 개체의 상태에 따라 주 2~4회 이내에서 사용하며, 승가를 잘 하는 웅돈이라도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건강한 웅돈이라도 2주 이상 휴식 중인 웅돈은 정액의 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사용치 않거나 사용 횟수가 극히 적은 웅돈은 즉시 도태시키도록 한다.

- 웅돈에 계절백신 접종 (돈단독, 파보, 구충 등을 실시, 돈콜레라 백신은 9월까지만 접종 한다.)

- 웅돈에 영양제주사 및 항생제 클리닝 실시

- 웅돈방 청소 및 소독을 포피세척과 병행한다.

- 인공수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필요한 웅돈의 수를 최소화하고 웅돈의 후사를 방지한다.

- 한번의 교배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부실한 교배관리는 재발 및 불임돈의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곧 교배횟수의 증가로 이어져 웅돈의 무리한 사용을 유발한다. 또한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돈은 다음 교배시 사고돈 교배라는 핸디캡을 안고 가게 된다. **양돈**